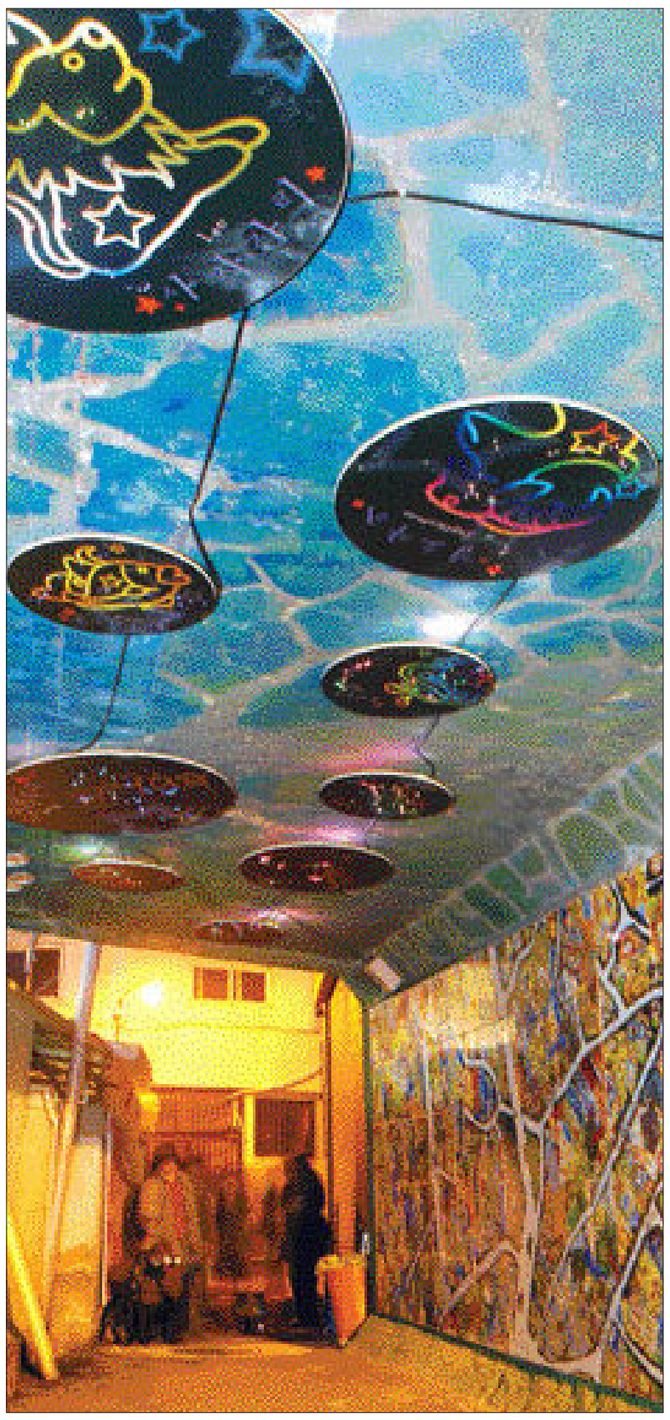

빛의 공간된 양동 통샘마을 굴다리

흉물스런 굴다리에서 화사하고 따뜻한 빛을 간직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난 광주시 서구 양동 통샘마을의 굴다리.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아시아문화예술아카데미는 올초부터 양동 통샘마을을 대상으로 한 공익미술 프로젝트인 '소망의 빛 프로젝트'를 추진, 최근 사업을 완료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남구 압촌동에 콩 종합센터

## 오늘 개원…전통 장담그기 체험 행사도
## 메주 등 장류산업 육성 전진 거점 활용

광주시 남구 압촌동에 '광주 콩 종합센터'(이하 콩센터)가 문을 열어 메주 등 장류산업의 발전 등 지역특화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광주시 남구는 20일 오후 2시 황일봉 남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콩 종합센터' 개소식을 갖고, 전통장 담그기와 전통음식 시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갖는다.

콩센터는 지난 2005년 10월 국비 6억원 등 모두 7억 2천만원을 들여 착공됐으며, 1천300평(4천290㎡)부지에 한옥 3동으로 이뤄졌다.

콩센터는 완두콩·검정콩 등 다양한 콩 종류와 콩으로 만든 전통 장류를 볼 수 있는 전시실과 회의실 등을 갖췄다. 또 센터 홈페이지에는 쇼핑몰을 개설했고, 특허출원·포장디자인 등 지적재산권도 확보했다.

남구는 앞으로 콩센터를 활용해 ▲콩 가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고유 브랜드 개발을 위한 판매지원 ▲콩 음식 보급 ▲전통 장류 공동생산단지 조성 등 콩산업 집적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구는 이날 4회째 맞이하는 '전통장 담그기 날'을 개최해, 주민들이 전통 메주를 손수 만들어 토속적이고 맛깔스런 장을 담가보는 체험행사도 함께 연다.

남구는 이를 위해 지난 달 23일부터 1구좌당 8만원의 재료비를 받고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1인당 전통 메주 5개와 소금 5ℓ 를 받아 분양된 장독대에서 전통 장을 담그게 된다. 이들에게는 오는 7월 말께 숙성된 된장 15kg과 전통 간장 5ℓ 가 돌아간다.

참가자들은 전통 간장과 된장의 관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요리방법 등을 전문가들에게서 배운다.

남구청 관계자는 "콩 종합센터가 건립된 지역은 예전에 콩 태(太)자 태촌으로 불렸을 정도로 콩을 많이 재배했던 곳"이라며 "콩 종합센터를 콩산업 육성의 전진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압촌 메주를 남구의 대표적인 특화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불법 광고물·주정차 위반·쓰레기 투기 단속

# 노인 1,450명이 나선다

## 내달부터 실버정비단 가동

은발의 노인들이 광주시내 주요 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주정차 위반·쓰레기 투기 등을 단속한다.

광주시는 19일 "65세 이상 노인들로 이뤄진 실버정비단이 다음달 6일 발대식을 가진 뒤 오는 10월까지 7개월 동안 활동한다"고 밝혔다.

'실버정비단'은 쓰레기 투기 단속과 노점상 단속 요원 각 300명, 불법 광고물 정비반 350명, 주정차 단속 500명 등 총 1천450명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물린 이번 사업은 신체 건강한 노인 2인 1개조로 편성돼 1주일에 3~4회씩, 하루에 3~4시간 단속과 정비에 나서며 한 달에 20만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는다.

정비단은 불법 벽보나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구청 전담반에 연락해 처리한다. 정비단은 쓰레기 투기 현장을 적발, 단속하거나 인도나 차도를 가로막는 노점행위 등은 단속과 계도 등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문화수도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실버정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노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무등산 등산로 주변 등
## 소나무 훼손 강력 단속

광주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소나무 등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시는 19일 "최근 무등산과 시내 주요 공원에서 소나무 벌목 등 산림훼손이 잇따르고 있어 훼손자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달초 동구 운림동 무등산 등산로 주변에서 40~60년생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100여 그루가 밑둥이 싹둑 잘린 채 발견됐다.

지난 달에도 서구 염주동 중앙공원에서 소나무 등 10여 그루가 무단벌채 됐으며, 서구 금호동 마륵공원에서도 소나무 30여그루의 밑둥 껍데기가 벗겨진 채 발견됐다.

광주지역의 산림면적은 2만여ha로 전체 면적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광산업 해외마케팅지원 효과

## 19개업체 美·中서 300만달러 매출 올려

광주시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광(光)산업체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휘라포토닉스, 가인테크 등 광주지역 광산업체 19개사가 광주시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98만 3천 달러에 비해 210%가 급증한 것이다.

노바옵틱스 등 12개 업체는 스웨덴 등 유럽에서 시장조사와 제품경쟁력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에이티아이 등 5개 업체는 경쟁력을 인정받아 마케팅에 착수, 올 신규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올 해는 국제광산업전시회와 해외 틈새시장 발굴 등을 통해 520만 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광부품업체를 돕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해외 에이전트 운영 외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시장동향 정보제공, 해외마케팅 전문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원광대 부속병원 앞~짚봉터널 '메단路' 지정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주변 도로가 '메단로'(路)로 지정된다.

광주시는 19일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광대 부속병원 앞에서 염주체육관 옆 짚봉터널에 이르는 1천120m구간을 '메단로'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박광태 시장이메단시를 방문했을 때 메단 시가 중심부의 '아흐마드야니로'를 '광주로' 명명한 것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시는 이 달부터 주민의견 청취와 지명위원회 및 시의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고 메단로 지정 명명식은 메단시장 등 우호교류협력 교류단의 광주 방문 일정에 맞출 예정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생활안내

**교통안내**

| | |
|---|---|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 360-8114 |
| 철도안내 | 1544-7788 |
| 대한항공 | 222-2000 |
| 아시아나항공 | 221-6300 |
| 한국도로공사 | 1588-2505 |

**상 담**

- 당직변호사(20일) 박덕희 222-0011
- 법무사회 법률상담(20일) 신권채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